

남편의 사랑의 의미

성경말씀: 엡5:22-33

- 지난 주 요약: <아내의 복종의 의미>, 1. 여자는 남자와 평등하지만 다르며 남자를 보완해야 한다. 2. 남자가 여자의 머리 됨은 군대에서 지휘관을 세우는 것과 같다. 3. 그러므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지정에 순종하라는 것이다. 4.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이다. 즉 머리와 몸의 관계이다. 5. 남편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낮추고 최선을 다해 그를 도와야 한다. 6. “나는 주님께 복종하듯 내 남편에게 복종하겠다”고 작심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남편의 의무: 사랑하라(25)

‘사랑하라’는 진부한 말이 아닌가?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인가? ‘좋아한다’는 뜻이다. “나는 저 차를 좋아해, 나는 초콜릿을 좋아해. 우리 집을 좋아해.” “나를 위해 무엇인가 유익한 것을 해 주므로 좋아한다는 뜻이다.” “즉 나의 정신적 육체적 욕망을 채워 주니 좋아한다는 뜻이다.”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은 이것과 180도 다르다. 아내가 정신적 육체적 욕망을 채워 주므로 좋아하는 것은 성경의 사랑이 아니다.

사랑의 정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25).

1.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들로 인해 더럽기가 한량없는 존재, 좋아할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 우리의 모든 의는 갈레 누더기
 - a.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롬3:10).
 - b. 모두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롬3:23). 과녁에서 벗어남
 - c.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히9:27).
 - d. 죄의 삶은 사망이므로 이대로 죽으면 지옥행이다(롬6:23).
 - e. 영웅호걸, 빈부귀천, 유식무식이 다 같다. 소용없다.
2.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롬5:6-9): 스스로 존재하는 분, 온 우주의 창조주
 - a.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베들레헴의 비천한 마구간에서 사람으로 태어나 목수로 살다가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 형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비참하게 죽음.
 - b. 자동차, 집 이런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다 내어 줌. 다윗의 표현(시8:3-4).
 - c. 고후5:21
 - d. 그래서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구원자가 되셨다(23절): 영과 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
 - e. 그 목적은 교회를 거룩히 구분하여 자신만을 위한 존재가 되게 하려 하는 것(26), 영광스러운 교회, 흠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시려는 것(27)
3. 그러므로 남편의 사랑은 오직 아내의 유익을 바라면서 희생하는 사랑이다. 내 아내가 나의 욕구를 채워주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좋아할 여지가 하나도 없는데도 결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일단 좋아해서 결혼해도 얼마 지나면 싫어하는 것, 연약한 것과 부족한 것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내의 구원자가 되어야 한다. 구원하려면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한다.
4. 그러므로 남편의 사랑은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다.
 - a. 성경에서 아내는 남편을 이런 식으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 딤후2:4-5, 이런 사랑에 감격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 b. 그리스도는 우리가 사랑스러운 존재라서 죽은 것이 아니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 죽으셨다. “당신은 아내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에 대한 답 “얼마나 무거운 십자가를 지겠는가?”
 - c. 그래서 사실 아내의 복종보다 남편의 사랑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이다. 결혼하려고 데이트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트 하려고 결혼해야 한다. 결혼 후에 더 잘해야 한다.
5. 그래서 남편들은 매일 물어야 한다. “나는 아직 살아 있는가?” 살아 있으면 아직 희생을 덜 치른 것이다. 목사인 나도 아직 떨었다. 다만 이제 깨닫고 해 보려고 한다. 그래서 결혼 서약에서 목사가

묻는 것이다.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사랑하겠는가?” 아내는 이 질문에 대한 남편의 답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 “당신이 이브처럼 상황을 나쁘게 만들어도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는다. 무슨 문제를 일으켜도 나는 당신과 함께한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에는 나는 언제나 당신의 구원자다.”

6. 남편은 아내를 거룩히 내게로 분리하여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만들어야겠다고 희생해야 한다(26-27).
 - a. 남편이 아내와 결혼하면 그 여자뿐만 아니라 여자의 과거와도 결혼하는 것이다. 결혼 전 데이트할 때에는 좋은 것만 보인다. 신혼여행을 다녀오면서부터는 나쁜 것도 보인다(화장, 속눈썹, 소리를 지름, 수다쟁이, 코를 곤다. 음식을 못 한다 등등). 남편은 이런 아내를 성화시키는 사람이다. 즉 아내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보이면 고쳐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사랑이다. 우리도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성화시킨다. 문제를 고쳐 주신다. 과거를 문제 삼으면 구원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이 성화 과정의 시작이다.
 - b. 싱크대에 조그만 것들이 쌓이면 결국 막히게 된다. 물이 안 나가면 싱크대를 버리는가? 아니다. 내가 하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써서 뚫어야 한다. 뚫는 장치로 조그맣게 구멍을 내면 그때부터 물이 빠진다. 그러면서 구멍을 확장하면 드디어 싱크대가 확 뚫린다.
 - c. 아내와 살다 보면 조그만 것들이 쌓여서 막히게 된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뚫어야 한다. 그래야 정결하게 된다(26). 아내의 과거가 속을 썩일 수 있다(결혼 가정, 불순종하는 엄마, 가정교육의 문제 등). 남편은 결혼했으면 이 모든 것을 희생으로 감당해야 한다.
 - d. 27절의 점은 외부 세상으로부터 더럽게 된 것, 주름은 내부에서 더럽게 된 것(특히 나이), 남편은 이런 것들을 없애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아내가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저도 안 지를 것입니다.” 아니다. 그래도 참아야 한다. 그게 아내를 거룩히 구분하는 것이다. 남편은 아내의 구원자다.
7. 남편은 아내를 양육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28-29).
 - a. 남편은 아내와 가정의 모든 필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특히 남편은 가정의 경제적 필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 b. 딸을 셋이나 둔 부모의 조언: 믿음, 인간성, 능력(지적 능력, 경제적 능력)
 - c. 삼상25장의 나발은 지적 능력이 모자라서 결국 죽음을 자초함.
 - d. 경제적 능력이 모자라면 온 가족에게 어려움을 줌: 창세기의 범죄 이후 부과된 남편의 의무(창 3:17-19), 가정을 부양해야 한다(딤후5:8).
 - e.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그녀를 얻기 위해 14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다(창29:15-30). 그런데 그는 처음 7년을 사랑으로 인해 며칠 같이 여겼다(창29:20). 이르는 가운데 네 아내와 11명의 아들들이 태어났다. 부지런히 일해서 가정을 꾸렸다. 외삼촌과 처남들이 야곱을 미워함. 결국 도망가게 됨, 라반이 뒤쫓아 옴. 그가 이야기함(창31:38-40). 가정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일해야 한다.
 - f. 그래서 아내와 가정을 사랑하는 자는 실제로 자기를 사랑한다(28).

결론.

우리가 사랑스러운 존재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남편도 아내의 구원자다. 희생해야 한다. 성화시켜야 한다. 경제적으로 아내와 가정을 부양해야 한다.

그래서 33절을 이루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